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정부 지원

고용부 4월부터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료의 3분의 1을,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2분의 1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보수 105만~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3분의 1을,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급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4월부터는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 없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고용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사업에 올해 5384억원의 예산을 편성, 189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촉진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부에서도 공약 실현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 기업경기 바닥 탈출?

업황 BSI 소폭 상승...체감경기도 3개월째 개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3개월째 개선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최근 광주·전남지역 종사자수 5인 이상 46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1월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와 2월 업황전망BSI는 68과 69로, 3포인트, 5포인트씩 상승했다.

하지만 업황 BSI가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못 미쳐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BSI가 기준치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21.6%) ▲내수부진(20.8%)이 컸으며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7.0%) ▲수출부진(6.4%) 등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6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2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보다 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비제조업체들도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4%) ▲불확실한 경제상황(10.7%), 원자재 가격상승(6.1%) 등을 경영여부사항으로 꼽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설 선물, 한과가 딱이예요

2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서 열린 '전남 특산물 대전'에서 담양 대표 특산물인 담양한과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구직자 70% "명절에도 책과 함께"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설 연휴에도 취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22~27일 구직자 107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70.9%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유(복수 응답)는 취업이 급해서(5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맘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아서(36.5%), 취업 준비를 안 하면 불안해서(28.9%), 숨은 소리 안 들어도 돼서(15.4%), 평소와 취업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6.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33.2%는 취업 준비를 이유로 명절에 친지 모임에 불참한 경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주유소 할인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For U' 출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출시한 MG라이프체크카드, MG포인트체크카드에 이어 전 주유소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For U(油)체크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For U(油)체크카드'는 기존의 MG라이프체크카드, MG포인트체크카드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모든 주유소 할인 및 주요 편의점 할인서비스를 비롯해 도서,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할인서비스 등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발급 중에 있으며 발급 테스트 및 캐시백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2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심신박약자도 보험 가입



정부, 상법 개정안 의결

심신박약자라고 해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명시했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연합뉴스

불공정거래 관행 잡는다

거래 공정화 추진...판매장려금·사원파견 금지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했던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비용을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납품업체의 '손톱 밑 가시'였던 판매장려금이나 관촉사원 파견 등의 관행도 개선된다. 이를 거는 대형 유통업체 임원은 검찰 고발을 각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업체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고쳐 인테리어비·광고비·물류비·관촉사원 파견비 등 각종 납품 추가비용의 부담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찾은 매장위치 변경으로 생기는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인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가 이런 비용을 대부분 감당했다.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개선한다.

대형 마트의 납품업체의 상품을 사들이는 일정 수수료를 붙여 판매한다. 아울러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챙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허용했으나 허용 범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따라서 심사지침을 제정해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관촉사원을 요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관촉사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한다. 그러나 예외 허용 사유가 너무 폭넓어 관촉사원 파견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 행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촉사원 불법 파견을 막기로 했다.

국내 백화점 매출의 75%가량을 차지하는 특약매입거래는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사들이고서 판매가 부진하면 납품업체에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반복되면 대형 유통업체 임원 등 책임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한다. /연합뉴스

차 할부금융사

취급수수료 폐지

금감원 3월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사들이 저렴한 금리로 고객을 유인한 뒤 나중에 취급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동차대출(오토론) 상품의 평균 금리는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제로 한 '제2호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내놓으며 오는 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를 없앤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을 보면 A씨는 자동차 판매사원에 여전사의 할부금리가 6%대로 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는 안내를 듣고 은행 대신 여전사를 이용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받을 때가 돼서야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없애고 할부금융사가 대출상품 금리에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박종진의
캐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의
먹거리X파일

매주 금 밤 11시

박종진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이영돈**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